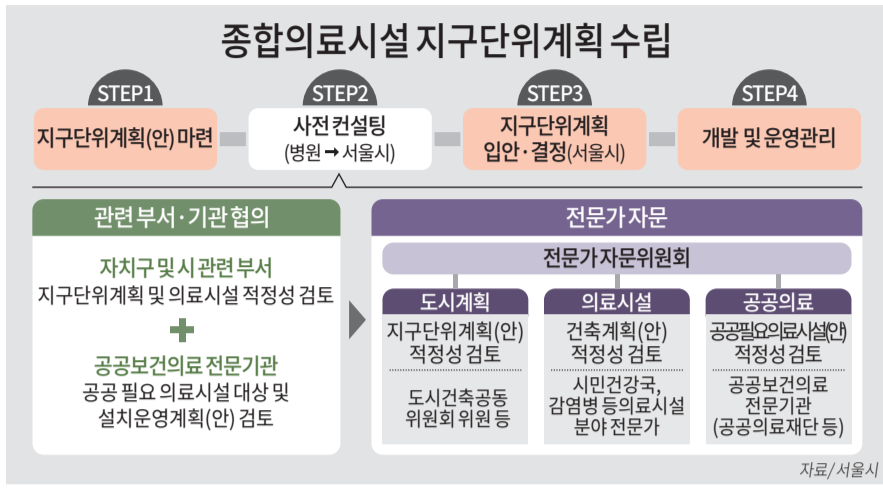


서울시, 감염병시설 짓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완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울 종합병원 21개소 용적률 부족
증축 희망 병원에 사전컨설팅 실시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갖춰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사이 준공된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

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을 말한

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 평상시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이용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이 되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 추진되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실,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기준 약 9만8000

㎡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에 따르면, 우선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본격 증축에 나선다.

시는 이번에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책 읽는 서울광장... 21만1000명 찾았다

서울시, 지난달까지 총 43회 운영
94.7% 긍정적, 94% 재방문 의사



책 읽는 서울광장 /서울시

올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개장한 도심 속 열린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이 지난달까지 총 43회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책 읽는 서울광장은 개장 이후 총 21만1000여명, 하루 평균 49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하반기 '엄마·아빠가 행복한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는 콘셉트로 특화 공간과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찾았다. 이는 상반기 일 평균 방문자 대비 291%나 증가한 수

준이다.

미반납된 도서는 전체 도서 중 1.3%에 불과했고, 책을 가져갔던 시민이 사과의 편지와 함께 새 책 15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 대여물품 분실률과 쓰레기 배출률도 0%를 기록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은 11개 열린서가,

5000여 권으로 구성된 열린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열린도서관은 별도 회원가입이나 대출반납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 참여한 시민 166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4.7%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94.0%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은 내년 4월,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문을 연다. 기존 금·토·일 3일에서 목·금·토·일 4일로 운영 일수가 늘고, 서울광장을 책과 읽, 문화가 있는 광장으로 문화적 가치를 새 단장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아이들이 발굴한 아동정책, 서울시에 제안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 개최
맞춤형 놀이터 등 17개 정책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표지판과 정류장을 설치해주세요"

서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시 아동정책을 평가하고 직접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에 제안하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 '아이들의 행복서울 이야기'를 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발표대회에선 지난 6개월 간 80여명의 서울 아동들이 정책평가와 토론, 현장방문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굴한 17개 정책이 한 자리에서 공유된다.

제안된 정책을 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놀이터 조성', '아동 맞춤형 필수 교통안전교육', '아동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공원 조성', '자연생태놀이터 설립', '아동 대상 스마트폰 지도앱' 등이다.

심사위원 심사와 참여아동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정책 5개팀이 선정되며 서울시장이 수여된다. 시는 선정된 우수정책을 내년 수립 예정인 '아동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에 반영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발표대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실시간 채팅창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80여명의 아동들이 제안해준 정책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경기도, 도내 유망중소 206개사 선정

총 760개사 신청... 경쟁률 3.8:1

경기도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206개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 브랜드 확산을 통해 기업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실시한 경기도 대표 인증이다.

올해 인증에는 총 760개 사가 신청해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새싹기업(스타트업) 분야 10개사 ▲최초인증분야 156개사 ▲재인증분야 40개사 등 총 206개사를 선정했다. 신규인증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재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며 인증기간동안 ▲유망중소기업 인증 로고(BI)를 활용한 포장재, 업무수첩,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지원 500만 원 ▲경기도 정책자금 심사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8개 기관 55종의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청년정책 플랫폼 온라인 제안 창구 운영

서울시는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는 일자리, 주거, 환경, 사회안전망, 불평등 문제 등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내용은 서울시 시민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과 연동돼 시민 공감 정도에 따라 검토 등이 진행된다.

시는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질 / 17:13

12월 6일 (화)
음력 : 11월 13일

수도권 날씨
-3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기온: 연천 -7/3, 동두천 -7/4, 가평 -7/4, 파주 -8/3, 서울 -3/4, 양평 -7/4, 수원 -2/4, 용인 -2/4, 인천 -2/5, 평택 -5/5, 백령도 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마크롱 "바이든과 전기차 등 IRA 분쟁 조정하기로 합의"
▲올해 미국 내 김치 수출액 2670만 달러... 사상 최대 /사진 뉴시스

▲머스크 "애플, 트위터 광고 전면 재개"... 갈등 봉합했다
▲머스크 "상당한 암살 위험에 노출... 그러지 않길 바란다" /한용수 기자



▲"정저우 아이폰 공장, 이달말 또는 내달초 완전가동 전망" /사진 뉴시스
▲왕실지위 박탈... 덴마크 왕자 가족, 미국으로 이주 계획